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봉사단이 지난해 12월 13일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직원과 직원 가족 56명이 참여했다. 판자촌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 12세대에 총 2,400장의 연탄과 이불, 장갑 등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연탄과 기부 물품은 모아사랑 기금으로 마련됐다. 사진은 연탄 나눔 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지나호 정답



제762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 병원을 잇는 일, 마음을 잇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원무팀 류화안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1월 15일(목)

발표 제766호(2026년 2월 1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이내영(외래간호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박애경(소화기내시경팀)
류연미(중앙내과)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안지은(심장병원)
조영미(외과간호2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기현(수술간호팀)
김수남(소화기내시경팀)
김수연(진단검사의학팀)
조형우(정신건강의학과)
최인선(수술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신상미(간호교육행정팀)
신예나(내과간호1팀)



서울아산병원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VOL.764 2026. 1. 1



회복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2026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우리 병원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높아진 환자 중증도에도 모든 직원의 헌신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을 지켜 왔다. 올해 우리 병원은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체계와 중증질환 중심의 전문의 진료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유전체 기반 의료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업할 때 우리는 회복을 넘어 더 높고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박승일 병원장(가운뎃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경영진과 고객칭찬 대상, 분기별 고객칭찬·협업 우수상, 학술연구 우수상, 제안대상 수상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힘찬 2026년을 다짐하고 있다.

02 의료원장 격려사

04 병원장 신년사

09 NEWS 심장이소증 신생아 치료 국내 첫 성공

17 협업의 가치 사용이 편리한 메디게이션 만들었어요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인재 육성에 힘을 모아 우리의 사명을 이어 가고 미래를 준비해 갑시다

아산의료원장 박성욱



서울아산병원과 전국의 아산의료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수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의정갈등으로 지난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진료와 수술 외에도 당직을 서고, 진료전담 간호사와 지원부서는 기존 업무 경계를 넘어서 중증 환자들의 안전에 집중했습니다. 모두의 역할과 입장은 달라도 위기 상황에서 환자를 우선하는 본연의 사명에 전념한 결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병원 경영도 차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의 자랑스러운 성취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뉴스위크가 발표한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국내 1위, 세계 25위에 올랐으며, 환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19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백혈병 환아에게 남아있는 암세포 기반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 생존율을 4배 높였고, 신장이 7배나 커진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에게 아시아 최초로 로봇 신장이식에 성공했습니다. 심장병원은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게 3D완전내시경으로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2030 젊은 암 극복에 앞장선 교수님들은 병원 밖 트랙에서 암 생존자들과 함께 달리며 새로운 희망을 전했습니다. 도전의 중심에는 중증 환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재단의 설립 이념은 지난 37년간 서울아산병원의 모든 구성원을 통해 소중한 가치로 이어져 왔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노년층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 후까지 진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위드원(WithONE)’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의 아산병원과 연계를 강화해 의료 소외 지역 노년층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

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릉, 정읍, 보령, 홍천, 보성, 영덕, 금강 전국 7개 지역의 아산병원은 지역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강릉아산병원은 로봇수술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 지역 내 고난도 수술을 더 확대하고, 중증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긴급치료 병상을 마련합니다. 강원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지역 의료 안전망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읍아산병원은 의사 인력 충원과 노년질환 진료체계 강화 등 지역사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홍천아산병원은 병원동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진료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아산병원과 지역 아산병원 간 환자 의뢰, 회송이 3만 건에 달했습니다. 지역의 중증 환자에게 서울아산병원의 고난도 치료를 제공하고 이후 관리와 회복은 지역 병원이 담당해 치료 연속성을 높이며 지역 병원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아산병원의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가 지역 아산병원에 잘 이어지고, 시니어 교수님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가족 여러분,

중증 환자들을 위해 안전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조직이 커지고 역할이 세분화될수록 의사소통 과정이 복잡해지고 의미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조직의 리더부터 현장의 모든 구성원까지 미래 성장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한 방향으로 공유하고 정렬해 나가야 합니다.

정주영 설립자님은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각자가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립자님의 의지는 개원 초기 젊은 인재를 모으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국내 의료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병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미래는 인재 육성에 달려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의료진이 현재의 능숙한 선배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선배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료진은 끊임없는 질문과 시도로 의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순환을 만들며 서울아산병원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AI를 적극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와 병원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관리, 지원, 연구 부문에서도 전문가 양성에 힘써서 AI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바랍니다.

최고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혁신적인 기술과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환자를 치료하고 질병 너머의 삶을 재건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했던 병원의 설립 이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공감과 위로의 치료로 환자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서울과 지역의 아산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내재화하고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여 더 높이 도약합시다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일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서울아산병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공의 복귀와 더불어 닫혔던 병동이 지난해 말 모두 문을 열었고, 병원의 운영도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중증도에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환자와 병원을 지켜 주시고, 세심한 간호를 펼쳐 주신 모든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작년 발표한 임상 분야별 순위에서 암과 소화기, 내분비, 신경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6개 분야가 세계 톱10에 들었습니다. 국내 병원 중 최다이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중증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다시 찾아주기 위한 노력은 세계 최초 간이식 9,000례를 비롯해 국내 최초 대장암 로봇수술 3,000례, 폐이식 300례, CAR-T 치료 100례 등 희망의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새해에도 계속되어 더 많은 환자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 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복 에너지로 더 큰 도약

우리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중증 환자들의 높은 기대, 다른 병원들의 거센 도전을 매 순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정 사태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서로가 받은 마음의 상처와 손상된 관계, 그리고 침체된 의료를 회복하고 다시 도약할 때입니다.

환자들로부터 잃은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교수와 전공의, 의사와 간호사 등 직무와 직급을 막론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손상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간의 신뢰가 더 단단해질 때 외부의 신뢰, 환자로부터의 신뢰 역시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지난 기간 침체되었던 진료와 연구, 교육 각 부분에서도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다시 그 이전의 상태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회복탄력성은 원상 복구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갈 것입니다.

환자 중심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추구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는 과거, 진료의 양이나 의학적 치료 성적, 생존율 같은 임상 지표를 넘어 통증이나 기능 회복 등 환자의 삶의 질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결과에도 가치를 두는 의료입니다. 전립선암을 치료받고 완치가 되었지만 요실금으로 힘들어 한다거나, 식도암을 수술받고 완치가 되었지만 반복적인 수술 부위 협착으로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 환자의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환자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또한 중요한 치료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고려하는 의료

가 '가치기반의료(VBH; Value Based Healthcare)'입니다. 가치기반의료를 구현하는 중요한 실천 중 하나가 '환자자기평가결과측정(PROM; Patient Reported Outcome Measurement)'입니다. 이미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중인 기초 단계의 PROM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환자의 데이터가 진료에 반영되어 치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노년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 후까지 전주기 진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위드원(WithONE)' 프로그램,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진료를 구축하고자 지난 5년간 개편해 온 진료권한 정의도 가치기반의료의 한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AGS와 지속적인 PI활동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성숙한 수준을 이룬 우리 병원은 이제 환자 중심의 가치기반 의료체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환자 중심 문화를 확산해 '질병을 고치는 의료'에서 '환자의 삶을 재건하는 의료'로 우리의 내재된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인프라 혁신이 이끄는 미래 경쟁력

병원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혁신은 장기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입자치료기 도입은 2031년 환자 치료를 목표로 상반기 중 P동 증축과 중입자치료센터 건축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토목공사에 착수합니다.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전략적 선언이자 암 치료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반입니다. 중입자치료기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연구,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QST병원과 지난해 MOU를 체결하였고, 치료 적용이 제한적이었던 암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술실 증설과 이를 활용한 수술실 리모델링이 진행되며, 서울아산병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청라병원은 지난해 말 착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10월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서울아산병원 소화기전문병원(Asan GI Specialty Hospital)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소화기암과 고도 비만 등을 포함한 치료와 예방, 현지 의료진 교육 등을 담당할 11명의 의료진을 파견합니다.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갖춘 우리 병원의 브랜드를 중동에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6년 병원운영목표	고객 가치기반 의료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문화 정착• 환자 경험 중심의 프로세스 구축• 공감과 친절을 통한 고객 행복 제고
	지속 가능 우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의료 및 중증질환 중심의 전문의 진료 체계 고도화•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역량 제고• 차세대 우수 인재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효율화를 통한 환경 변화 대응• 연구 활성화 및 가치 창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미래 의료 선도
	신뢰와 존중 문화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중과 소통을 통한 협업 문화 구현• 직원의 심리적 안정감 증진•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

AI 혁신은 이미 우리 업무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설된 AI혁신지원실을 중심으로 AI 신기술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하나의 구조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극적인 분석과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통합데이터플랫폼(IDP)도 구축합니다. 사용자 주도의 데이터 혁신과 최적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빅데이터, AI 기반의 신속하고 안전한 연구체계를 제공해 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진료 공간과 연구 공간, 인터넷 공간을 분리하는 망분리도 함께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진료, 연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AI를 통한 혁신은 기술적 도구에 국한되지 않고 병원 전반의 업무와 역량을 재정의하여 예측과 자동화에 기반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

지난해 우리 병원은 흉골 전체가 없고, 흉부·복부 피부와 연부조직이 결손되어 심장이 체외에서 뛰고 있는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를 국내 최초로 수술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소아심장외과, 산부인과, 융합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의료팀이 흉강 내 공간을 만들고 심장을 그 안으로 위치시킨 다음 배양피부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보호대로 흉부를 재건하는 수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협업의 결과입니다.

의료 영역뿐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많은 도전 과제는 협업의 조직문화를 전제로 합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 공감과 존중이 살아 숨 쉬는 조직 속에서 작은 격려 한마디, 사소한 개선도 함께 인정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병원을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안할 때보다 기존의 것을 새

로운 시각으로 볼 때 훨씬 더 큰 혁신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와 불편했던 소통의 벽을 허물고 작은 의견도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협업 환경 속에서 모든 직종이 업무에 몰입하고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에 남을 위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임하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노력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활력과 신바람의 에너지가 가득한 조직문화 속에서 서울아산병원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세워나가며 앞선 미래로 발맞춰 갑시다.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2026년.
건강한 성장과 성취를 함께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식에서 (왼쪽 네 번째부터) 이상준 청라메디폴리스PFV 대표이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승일 병원장, 이용우 국회의원,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식이 지난해 12월 29일 청라의료복합타운 건립부지에서 열렸다. 착공식에는 박승일 병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최기준 청라병원추진단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

천광역시장, 이용우 국회의원, 이상준 청라메디폴리스PFV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종합 병원과 의료바이오 산·학·연 클러스터, 업무·상업시설 등을 26만㎡ 규모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우리 병원의 3분의 2 규모인 9만 7,450.9㎡(약 3만 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의 8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병원을 목표로 해외 중증 환자의 전문 치료를 위한 암, 심장, 소화기, 척추·관절센터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 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최적의 진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등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독창적인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4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IFEZ 경관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쿠웨이트에 고난도 수술법 전수



내분비외과 성태연 교수(왼쪽 두 번째)가 쿠웨이트에서 고난도 갑상선 재발 환자 수술법을 전수하고 있다.

내분비외과 성태연 교수팀이 쿠웨이트 보건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해 12월 2일부터 3일간 로봇을 이용한 거드랑이 절개 갑상선 절제술, 후복막 접근 부신 절제술, 갑상선 재발 환자 수술 등 총 5건의 고난도 수술을 시행하며 선진 의술을 전수했다. 쿠웨이트에서 처음 시행된 내분비질환 로봇수술에는 현지 의료진 40여 명이 참관해 고난도 술기를 전수받았다.

로봇수술은 손목 관절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 팔을 활용

해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고해상도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할 수 있어 주요 혈관 손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특히 로봇 갑상선 거드랑이 접근법 수술은 거드랑이에 4~5cm의 구멍 1개만 절개하면 돼 상처와 통증, 출혈이 최소화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적어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반면 쿠웨이트는 로봇수술 기기를 도입한 병원이 많지 않고 내분비외과 분야 치료 기법의 발전은 더욱 더딘 상황이었다.

이번 수술법 전수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은 쿠웨이트 알 아미리 병원 샤이마 다쉬티 교수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샤이마 교수는 2021년부터 2년간 우리 병원 내분비외과에서 임상 강사 과정을 이수한 뒤 쿠웨이트 현지에서 내분비외과 분야 발전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를 계기로 쿠웨이트 최초의 내분비외과학회인 '쿠웨이트 내분비외과학회'가 창립됐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회 심포지엄에서 성 교수는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로봇수술 시스템 및 환자 관리법 등을 강의했다. 성 교수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쿠웨이트 보건부와 내분비외과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심장이소증 신생아 치료 국내 첫 성공



우리 병원 의료진이 국내 처음으로 심장이소증 신생아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왼쪽부터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 박서린 양 소아청소년심장과 백재숙 부교수.

우리 병원 의료진이 국내 처음으로 심장이 흉곽 안에 위치하지 않고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신생아의 심장을 흉강 안으로 넣고 가슴 부위를 배양 피부로 덮는 고난도 재건 수술에 성공했다. 박서린(여, 8개월) 양의 부모는 임신 12주째인 2024년 11월 1차 태아 정밀 초음파검사서서 초회귀 선천성 질환인 '심장이소증'을 진단받았다. 산부인과 이미영 부교수는 매 진료마다 태아의 심장 구조와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폈고, 주치의인 소아청소년심장과 백재숙 부교수, 소아심장외과 최은석 부교수는 모든 연구 문헌을 찾아보며 치료 가능성을 모색했다.

지난해 4월, 38주 만에 태어난 서린이는 흉골 전체가 없고 흉부·복부 피부 및 연부조직이 결손되어 심장이 체외에서 뛰고 있는 상태였다. 소아청소년심장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

과, 소아심장외과, 산부인과, 융합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은 흉강 내 공간을 확보해 심장을 넣은 뒤 그 위를 배양시킨 피부로 덮어 흉부를 재건하는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

출생 다음날 성형외과 김은기 교수는 개방된 흉부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인공피부를 덮는 수술을 시행했고,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는 세 차례에 걸쳐 간을 아래로 내리면서 조금씩 심장을 흉강 내에 밀어 넣는 고난도 수술을 집도했다. 이어 김은기 교수는 서린이의 피부를 소량 떼어 배양한 자기유래 배양피부를 흉부에 이식했다.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는 외부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도록 3D 프린팅을 이용해 양측 흉곽을 모아주는 맞춤형 보호대를 제작했고,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재활 치료를 진행했다. 서린이는 건강을 점차 회복해 최근 퇴원했으며 현재 외래 진료를 다니고 있다. 3세 이상이 되면 전흉벽을 인공 구조물로 재건하고 그 주변을 근피부조직으로 덮는 추가 수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백재숙 부교수는 "서린이가 보여준 작은 변화들이 의료진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이 다음 치료 단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탕이 됐다. 서린이를 통한 응원의 메시지가 희귀 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세훈 교수는 "초회귀 선천성 질환인 심장이소증 아기를 살리는 것은 의사 한 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의 긴밀한 협진 덕분에 서린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 1,000례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 1,000례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경두개 자기자극(TMS) 치료 1,000례를 최근 달성했다. TMS 치료는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서 시행하는 비침습적 뇌 자극술이다. 단일자기 자극으로 뇌 자극 부위와 강도를 결정한 뒤 코일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해 치료한다. 우리 병원은 지난해 3월 TMS 치료를 도입했다. 치료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주관적 표현뿐 아니라 스케일 측정을 바탕으로 객관화한 수치를 함께 분석해 치료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병원과 중증환자 의뢰·회송 10년간 3만 건



정읍아산병원 황대성 소아청소년과장(왼쪽 첫 번째)이 환아를 진료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아산재단 산하 병원들과 최근 10년간 진료의뢰 1만 7,596건, 진료회송 1만 1,831건 등 총 3만여 건의 의뢰·회송을 진행했다. 지역 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를 우리 병원에 진료의뢰하고, 회복기·만성기 환자는 지역 병원으로 회송해 추적 관리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의

료 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각 병원별로는 정읍아산병원 1,722건·1,032건, 홍천아산병원 2,011건·1,456건, 보령아산병원 1,127건·1,135건, 보성아산병원 328건·166건, 영덕아산병원 516건·292건의 진료의뢰 및 회송이 이뤄졌다.

아산재단 산하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검사 결과, 치료 계획, 약물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치료 연속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 병원은 전국 7,100여 개 협력의료기관과 의뢰·회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월 1만 건 이상의 진료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진료 협력 확대에 맞춰 지역 병원들도 경쟁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정읍아산병원은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을 개소했고, 보령아산병원은 재활의학과와 비뇨의학과를 신설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하는 등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흉부 엑스레이로 노쇠 위험 예측



김남국 교수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이 흉부 엑스레이 영상만으로 노인 환자의 노쇠 정도와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우리 병원의 65세 이상 환자 1만 2,000여 명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과 임상 허약 척도를 학습시켜 노쇠 징후를 인식하게 했다. 이후 정확한 노쇠 평가를 받은 환자 1,400여 명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활용한 전이학습으로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외부 건강검진 데이터 5,900여 건으로 성능을 검증한 결과,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AUC 값(1에 가까울수록 정확

도가 높음)이 0.76으로 노쇠 위험 환자를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이 노쇠하다고 판정된 환자군은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이 7.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은 흉부 엑스레이 영상만으로 성별을 정확히 판별했으며 연령도 실제 나이와 4년 이내로 정교하게 예측했다.

김남국 교수는 “이 인공지능을 상용화하면 기존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재분석하는 것만으로 고위험군 선별이 가능해 질환 사전 예방과 맞춤형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영상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 학회인 북미영상의학학회 연례학술대회(RSNA 2025)에서 발표됐으며 우수연제 10선에 선정됐다.

실험동물 감사의 날

실험동물 감사의 날 행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연구원 대강당 로비에서 열렸다. 실험동물 감사의 날 행사는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한 실험동물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170여 명의 연구자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동물실험 연구과제에 사용된 7만 5,000여 마리의 동물에 대한 감사의 글을 낭독하고 묵념과 헌화를 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본격 시행



지난해 12월 11일 동관 로비에 마련된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홍보 부스에서 환자들이 ‘나의 건강기록’ 앱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우리 병원이 최근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주관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환자가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자는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나의 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아 검사와 진료기록을 조회·저장·공유할 수 있다. 제공 항목은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 이력(내원, 진단) ▲약물 처방 내역 ▲검사 결과(진단, 영상, 병리, 기타) ▲수술 내역 등이다.

2023년 9월 사업 가동 이후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1,269개 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보보호의 날



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7회 정보보호의 날 행사가 지난해 12월 18일 동관 소강당에

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활동 및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작을 제출한 부서와 직원을 시상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0개 팀이 참여했다. 조직 영향도, 실천 난이도, 지속성, 자율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정보보호 활동 부문에서는 내과간호2팀 173 유닛(교대 시 계정 로그아웃 팝업 적용) 등 7개 팀 ▲개선 아이디어 제안 부문에서는 병리팀 임정식 대리(검사장비 데이터 안전 전송 체계 구축) 등 3개 팀이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

해외의학자의 밤



해외의학자의 밤 참석자들이 동관 로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외의학자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 17일 동관 스카이라운지에서 진행됐다. 우리 병원은 해외의학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해외의학자의 밤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중국, 베트남 등 20개국에서 온 해외의학과 지도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인호 국제사업실장은 “세계 각국 의료진이 서울아산병원에 모여 선진 의료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세계 각국의 의료 혁신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워크숍



호흡기내과 허진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워크숍이 지난해 12월 11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병원 데이터의 활용과 공개 전략’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원내 연구자와 직원 24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영상·병리·생체신호·정밀의료 등 원내 데이터와 원외 오픈데이터셋의 활용 사례 ▲차세대 데이터 및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과제 ▲데이터 활용 연구의 법적/윤리적 쟁점과 대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산부인과 연수강좌



산부인과 연수강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부인과 연수강좌가 지난해 12월 7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산과, 부인과, 내분비 분야 관련 의료진 1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산후출혈에서의 JADA 시스템 임상적 적용 ▲난소예비력 저하 환자의 난임 치료 전략 ▲부인과 질환에서의 로봇수술 적용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원혜성 산부인과장은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문적 갈증을 채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천성심장병센터 심포지엄



선천성심장병센터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0회 선천성심장병센터 심포지엄이 지난해 12월 6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아 심초음파의 정상 수치와 심기능 평가 ▲영상초음파를 활용한 수술 의사결정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고난도 심초음파 기법 활용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캐나다의 마크 프리드버그 박사와 유시준 박사, 미국의 조나단 첸 박사 등 소아심장 분야 석학들이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위암 건강강좌



위암 건강강좌에서 소화기내과 나희경 부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암 건강강좌가 지난해 12월 8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위암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에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210여 명이 참석했다. 강좌에서는 ▲위암의 내시경·수술·항암 치료 ▲위암 환자의 영양관리를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유문원 위암센터소장은 “이번 건강강좌가 진료실에서 미처 풀지 못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어린이병원에 기부



전인호 국제사업실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주한미군 K-16 부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 서울공항기지 소속 주한미군 K-16 부대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우리 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환아들을 위해 인형, 장난감, 도서 등 100여 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우리 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은 주한미군 존 토본 상사의 배우자가 치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부대에 나눔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암 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 물품은 146병동과 소아항암주사실에 전달됐다.

이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AK홀딩스(주)	100,000,000원
고상걸	10,000,000원
고석태	10,000,000원
김도영	30,000,000원
김영심	30,000,000원
김진석	1,000,000원
래오이경제	100,000,000원
박수현	5,000,000원
베스트오브미여성의원	10,000,000원
애경케미칼(주)	100,000,000원
엄병윤	100,000,000원
오연정	20,000,000원
오희복	10,000,000원
이인석	300,000,000원
조준범	1,000,000원
(주)마뽕킴	50,000,000원
(주)신라인코리아	50,000,000원
(주)케이엔글로벌	100,000,000원
최이솔	3,650,000원
최재혁	1,000,000원
함동물류(주)	100,000,000원

불우환자 지원

금정희	1,000,000원
김재일	10,000,000원
김효상	100,000원
누리온누리약국	1,000,000원

배현진

백경옥	1,000,000원
사단법인 차세대경영인협회	20,000,000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10,000,000원
서나연	200,000원
세계패션그룹 한국협회	10,000,000원
송태현	1,000,000원
엄대열	200,000,000원
이광수	30,000,000원
윤이현	1,000,000원
임경덕	500,000원
장현중	1,000,000원
(주)세룬인터내쇼날	10,000,000원
(주)신라인코리아	50,000,000원
(주)앤솔로지클럽	3,650,000원
황성규	100,000,000원
황종숙	2,000,000원
황헌규	100,000,000원

교육

현대머티리얼 주식회사	10,000,000원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	10,000,000원

연구

김명숙	10,000,000원
하비스(주)	20,000,000원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오연정	20,000,000원
-----	-------------

불우환자 지원

서울아산병원제2어린이집	3,918,500원
--------------	------------

- 2025년 12월 14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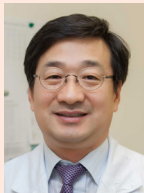
[Zoom in] 제2어린이집 시장놀이 수익금 기부



우리 병원 제2어린이집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아나바다 시장놀이’ 수익금 3,918,500원을 최근 기부했다. 제2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상, 하반기 원아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옷 등을 기부받아, 필요한 원아들이 직접 구입하는 체험 놀이를 진행한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은 소아청소년 불우환자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조영주 제2어린이집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이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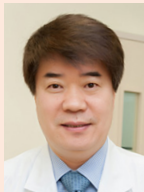
동 정

김태원 연구원장 미래한국의료대상



김태원 연구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제1회 미래한국의료대상을 수상했다. 미래한국의료대상은 대한병원협회가 한 해 동안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 제정됐다. 김태원 연구원장은 암병원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계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기초와 임상을 넘나드는 활발한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송재관 교수 송파구청장 표창



심장내과 송재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송파구 유공구민 표창 수여식에서 송파구청장 표창을 받았다. 송 교수는 2023년 9월부터 송파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장초음파검사 지원사업을 시행해 청소년기 무증상 심장판막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정형외과 의료진 북미경추연구학회 수상



이동호 교수 박세한 조교수

정형외과 이동호 교수, 박세한 조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3회 북미경추연구학회에서 임상연구 논문 부문 2등상을 받았다. 북미경추연구학회는 경추 질환 연구 및 치료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권위 있는 국제 학회다. 연구팀은 '경추 신경근병증에서 추간공 높이가 후방 추간공확장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한편 이동호 교수는 '경추 후궁 성형술에서 후궁 경첩 골절이 수술 후 회복과 방사선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3등상도 함께 수상했다.

김형돈 조교수 김진복암연구상



종양내과 김형돈 조교수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서울국제위암포럼에서 제20회 김진복암연구상을 수상했다. 김진복암연구상은 대한암연구재단이 탁월한 암 연구 성과를 거둔 국내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조교수는 절제불가능한 간암 환자에서 레고라페닙과 니블루맵의 안전성과 효능을 연구

한 임상시험 결과와 함께 임상 검체를 이용한 중개연구로 면역항암제 반응과 내성 기전을 규명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곽중일 임상강사 포스터 대상



소아청소년과 곽중일 임상강사가 최근 고려대학교 유광사홀에서 열린 제57차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대상을 받았다. 곽 임상강사는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초저체중 출생아의 예후: 국내 코호트 분석'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류정률 임상강사 미래의학자상



핵의학과 류정률 임상강사가 최근 열린 제64회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24차 아시아핵의학협력기구 학술회에서 미래의학자상을 받았다. 류 임상강사는 'F-18 FDG PET을 이용한 대사 개선제의 신경보호효과의 종적 평가'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장건영 임상강사 최우수구연상



노년내과 장건영 임상강사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제76차 대한노인병학회에서 최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장 임상강사는 '원격 다영역 중재를 통한 지역사회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 증진: 다기관 무작위 대조시험'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김정희 시뮬레이션센터팀장 보건복지부장관상



김정희 시뮬레이션센터팀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2025년 공공보건의로 성과보고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김 팀장은 공공보건 의료교육훈련센터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로 인력양성 및 역량제고 교육프로그램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천화영 박사 우수연제상



의공학연구소 천화영 박사가 최근 열린 대한림프부종학회 제15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천 박사는 '초기 림프부종에서 고강도 운동의 림프 기능 우선 향상 효과'를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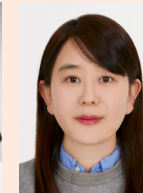
약제팀 학회서 수상



양사미 과장



최지영 유닛 매니저



이은미 유닛 매니저



김지애 대리



이세은 사원



오윤주 사원



이현진 사원

약제팀 양사미 과장이 최근 열린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2025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약제팀 최지영·이은미 유닛 매니저는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대한약사회 회장상을, ASP팀 김지애 대리는 미래병원약사상을 받았다. 또한 이세은 사원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티카그렐라와 클로피도그렐의 유효성과 안전성 비교'를 주제로 병원약사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술우수상을, 오윤주·이현진 사원은 연제발표 세션에서 '신·체장이식 환자에 대한 처방 중재 현황 분석 및 잠재적 약물유해반응의 심각도 평가'를 주제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박소연 유닛 매니저 질병관리청장 표창



감염관리팀 박소연 유닛 매니저가 최근 감염병관리 유공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박 유닛 매니저는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에서 손위생 및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 감시체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기관 감염관리역량 강화와 감염병 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김정훈 차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영상의학팀 김정훈 차장이 최근 열린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 차장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국민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윤천식 재단사무처 경영지원실장 동아병원경영대상



윤천식 재단사무처 경영지원실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12월 1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회 동아병원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동아병원경영대상(행정부문)을 받았다. 이 상은 2021년 서울시병원회와 동아ST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국민보건의로 향상과 병원경영 혁신에 기여한 의료·행정분야 인물에게 수여된다. 윤천식 경영지원실장은 우리 병원의 경영 효율화와 체계적인 병원 행정 관리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한편 윤천식 실장은 이번 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기금에 전액 기부했다.

의료인공지능 프로젝트팀 보건복지부장관상



우리 병원 의료인공지능 프로젝트팀 '5spoonAI'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의료AI 보건의로인 직무교육 사업' 성과교류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IT서비스팀 김유신 팀장, 류호용 유닛 매니저, 유용만·고영준·송우진 과장, 김민아 대리, 김민정 주임과 의료정보관리팀 강윤철 과장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은 9월부터 11월까지 의료 AI 보건의로인 직무교육 고급 과정에서 병원데이터 기반 에이전트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4개 병원 참가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IT서비스팀 송우진 과장(사진 오른쪽)이 시상식에서 대표로 수상했다.

인 사

보직임명

방사선종양팀	차장	송흥권	임: 방사선종양팀장
소화기내시경팀	차장	박유진	임: 소화기내시경팀장
영양팀	차장	박민아	임: 영양팀장
진단검사의학팀	차장	임영희	임: 진단검사의학팀장
진료협력팀	차장	문원규	임: 진료협력팀장
외과간호1팀	부장	강태림	임: P팀장
암병원간호2팀	차장	옥정희	임: 외과간호1팀장
국제교류팀	차장	최태현	임: 국제교류팀장
의료정보관리팀	차장	이미원	임: 의료정보관리팀장
재무회계팀	차장	박민우	임: 재무회계팀장
시설팀	부장	박동양	임: 재해예방관리실장

-이상 11명, 2026. 1. 1부.

박동성 고주파술 적용 시간에 따른 효과



마취통증의학과 김찬식 조교수

마취통증의학과 김찬식 조교수가 제80차 대한통증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만성 하지 신경뿌리통증 환자에서 박동성 고주파술(pulsed radiofrequency) 적용 시간에 따른 효과’에 관한 연구로 SCI(E) 학술상을 수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권현정 조교수, 신진우·최성수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박동성 고주파술의 적용 시간이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대조군 연구로 규명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Q. 연구의 배경은? 박동성 고주파술은 고주파로 강한 전기장을 형성해 신경에 작용하는 시술로, 후근신경절에 적용해 만성 신경뿌리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에 널리 시행된다. 전기장의 작용이 박동성 고주파술의 중요 기전임을 고려할 때 고주파술 적용 시간은 신경이 전기장에 노출되는 시간을 결정하므로 진통 효과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고주파술 적용 시간이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선택돼 왔고, 적용 시간에 따른 효과 차이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동성 고주파술 적용 시간의 차이가 실제 치료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본 연구는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대조군 연구로,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제한적인 만성 요천추부 신경뿌리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총 68명의 연구대상자를 고전적 적용 시간인 6분군과, 연장된 적용 시간 12분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12분군은 42°C에서 12분간 연속으로 적용했고, 6분군은 42°C에서 2분 적용 후 2분 휴식을 3회 반복해 총 12분간 시술했다. 두 집단 모두 총 시술 시

간을 12분으로 동일하게 설계해 눈가림이 유지되도록 했다. 연구 결과, 추적 관찰을 진행한 6개월 동안 두 집단 모두 시술 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통증 완화를 보였다. 하지만 일차 결과변수인 시술 3개월 후 숫자 통증 등급(numerical rating scale)으로 측정한 다리 통증 강도는 6분군 4.0, 12분군 4.5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박동성 고주파술이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적용 시간 연장은 신경 손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연장 적용이 유의한 치료 효과 차이를 보이지 않은 만큼, 임상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적용 시간을 늘리기보다 기존의 6분 적용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잠재적 신경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치료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적용 시간 외에도 고주파 전압, 박동 빈도와 폭, 온도 등 조절 가능한 많은 매개변수가 있으나, 잘 설계된 무작위 배정 대조군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동성 고주파술을 안전하게 시행하면서도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매개변수에 대한 후속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디자인·콘텐츠팀 / 간호교육행정팀 / IT서비스팀 / IT전략팀

사용이 편리한 메디게이션 만들었어요

병동에서 근무하는 A 간호사. 퇴원을 앞둔 환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메디게이션’에 접속했다. 필요한 자료를 찾고 나면 환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AMIS 3.0로 돌아가야 했다. ‘자료 검색부터 출력, 모바일 전송까지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병원은 환자가 치료 과정을 이해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현재 2,000개 이상의 자료가 ‘메디게이션’에 등재돼 있다.

활용도가 높은 만큼 사용자의 피드백도 꾸준히 이어졌다. 모든 환자 정보와 치료 내용은 AMIS 3.0에 기록되는데, 메디게이션을 이용하려면 아산넷에 다시 로그인해야 했고 교육자료를 환자에게 전송하려면 또다시 AMIS 3.0으로 이동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이었다. 또한 방대한 교육자료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색이 어렵고, 메디게이션 화면에서 바로 인쇄할 수 없어 다운로드한 뒤 별도로 인쇄해야 하는 등 사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았다.

번거로움은 줄이고, 접근성은 높이고

2024년 2월,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메디게이션 고도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간호교육행정팀은 사용자 관점에서 상세한 피드백을 제시했고 디자인·콘텐츠팀 홈페이지 개발자들은 ▲자료 다운로드 없이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 ▲메디게이션 내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부서별 즐겨찾기 기능 등을 추가하는 메디게이션 업그레이드를 담당했다. 또한 IT전략팀, IT서비스팀과 협업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아산넷과 AMIS 3.0간 로그인 연동을 추진했다. 환자교육자료 콘텐츠 담당자들은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자료에 주관부서, 주요 키워드 등을 설정해 사용자들이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메디게이션 고도화 효과는 현장에서 바로 나타났다. AMIS 3.0



메디게이션 고도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디자인·콘텐츠팀, 간호교육행정팀, IT전략팀, IT서비스팀 직원들.

화면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곧바로 메디게이션에 접속할 수 있게 됐고, 쉽게 자료를 찾은 뒤 인쇄와 모바일 전송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 불필요한 과정이 줄고 업무 흐름이 매끄러워졌다면 만족스러워하는 사용자들의 피드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게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현업으로 바쁜 직원들이 시간을 쪼개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긴급한 업무가 생길 때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메디게이션 고도화는 차근차근 진행됐다. 협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협업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메디게이션을 이용하는 의료진도, 메디게이션에 담긴 환자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환자도 모두 우리의 고객입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메디게이션을 더욱 효과적인 환자교육자료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병원보에서는 ‘협업의 가치’ 코너를 통해 다양한 직종, 부서 간 협업 사례를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협업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문간호사로서 성장하며 배운 것들



외과간호2팀 김윤희 주임

“간호사님, 혹시 음악을 배우신 적이 있나요?”

유리피관술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 중이던 한 환자가 문득 내게 건넨 질문이다. 환자는 교회 성가대에서 음악을 가르친다고 했다. “간호사님의 목소리는 귀에 잘 들어오고 신뢰가 가요”라는 말에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던 시기에 나의 설명에 귀 기울여 주던 환자의 한마디는 내게 더 배우고 성장해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다져주었다.

유방암 수술 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사였던 나는 림프부종 환자를 간호하며 자연스럽게 성형외과 전문간호사로 이어지는 인연을 경험했다. 2024년 11월부터 성형외과 전문간호사 업무를 시작하며 림프부종, 사지 재건, 만성 창상, 당뇨발 등 다양한 환자를 만나고 있다. 외래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해 수술 상담을 진행하고, 병동에서는 수술 후 관리와 드레싱 교육, 봉대요법, 추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처음이라 낯설었던 질환과 재건 수술, 다양한 창상 관리는 직접 부딪히며 익히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한층 견고해지는 것을 느낀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배움의 기회를 선택하고 싶었다.

과거 챔피언 간호사 WOC 활동을 하며 이수했던 상처장루실금보수 교육과 전문간호사 선생님들의 자문은 지금 나의 진료지원 업무에 큰 자산이 됐다. 질 높은 교육과 예방 활동이 결국 환자의 안전과 병원의 질 지표를 높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현재 나는 대한창상학회, 대한당뇨발학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 여러 학회에서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다. 전문성을 확장해 나가는 배움의 과정은 환자에게 신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다.

전문간호사는 결코 혼자 성장할 수 없다. 교수님들의 지도, 동료 간호사들의 협력, 수련의, 간호부, 원무팀, 적정진료팀, 국제진료팀 등 많은 이들과의 협업과 지원 덕분에 나는 매일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 명의 전문간호사가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병원의 많은 손길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깊이 느낀다.

2026년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마음으로 더 나은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 정진하고자 한다.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따뜻한 치료 여정을 제공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이며, 앞으로도 배움의 길 위에서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한 해의 평가가 마음을 흔들 때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



연말연시, 승진과 포상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결과와 상관 없이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건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이들은 잠시나마 성취와 안도감을 느끼지만, 상대평가라는 구조 속에서 일부는 좌절과 상실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에게 승진은 단순한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조직의 기준에 부합했다는 확인이자,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승진이라는 결과는 개인의 역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직의 구조, 시기적 조건, 상사와의 관계, 때로는 운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결과를 마주한 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승진 실패의 타격감이 유난히 크다면, 그만큼 업무에 높은 가치를 두고 오랜 시간 심리적 투자를 해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추가 업무와 자기 계발, 조직 내 긴장과 경쟁을 감내해온 사람일수록 승진은 그간의 노력을 한 번에 보상받는 상징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스로 승진 욕구가 크지 않다고 인식해 온 사람도 명단에서 제외되면 예상보다 큰 감정적 반응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책임감이나 겸손을 이유로 욕구를 억제해왔거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가 작동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미성숙함의 표현이라기보다 인정받고자 하는 보편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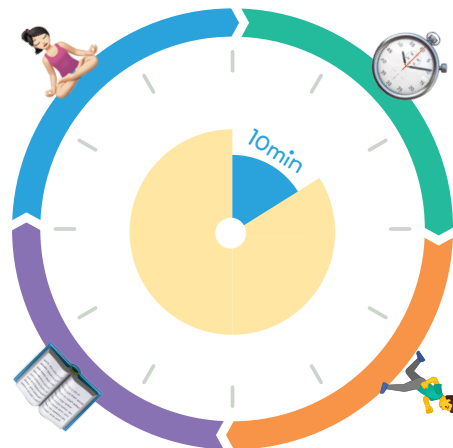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심리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절 이후 많은 이들이 다음 선택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직이나 부서 이동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방향 설정보다는 불확실한 시간을 건디는 심리적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더 노력하면 된다’는 조언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은 현실에서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승진 결과는 어쩔 수 없더라도, 오늘의 업무 수행 방식이나 동료와의 관계는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특정 역할, 특히 ‘직장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 개념의 대부분이 직무와 직함에 의해 정의될 때 직장에서의 좌절은 곧 자기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경험되기 쉽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속 김부장이 “회사를 빼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절규하는 장면은 이러한 정체성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그 자리를 내려놓은 뒤에야 직함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승진은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연말의 결과 역시 당신의 한 해를 온전히 평가하는 지표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당신이 성실히 보낸 시간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으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려 애쓰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차분히 회복해 나가 봅시다.

2026 새해 나를 바꾸는 10분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에 그치는건 목표가 너무 거창하기 때문은 아닐까?
최근 짧은 시간에 집중해 핵심만 흡수하는 ‘마이크로 러닝(Micro-learning)’이
자기계발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출퇴근길 5분, 점심시간 10분이면 충분하다.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큐레이션 앱을 소개한다. <편집실>



아침 🌞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궁금하다면



뉴닉 딱딱한 뉴스 대신 고슴도치 캐릭터 ‘고슴이’가 친구에게 말하듯 설명한다.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맥락부터 짚어주며 배경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뉴스레터로 받아볼 수도 있어 편리하다.

추천 대상 대화 주제가 풍부해지고 싶은 사람
Micro Point 아침 업무 시작 전, 5분만 투자하면
오늘의 이슈 끝!
가격 기본 무료 (유료 멤버십 ‘뉴닉+’ 별도)

깊이 있는 영감이 필요할 때



롱블랙 매일 자정, 비즈니스와 브랜드 이야기를 단 하나씩만 발행한다. 24시간이 지나면 읽을 수 없다는 제한성 덕분에 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기에 좋다.

추천 대상 남다른 안목을 기르고 싶은 트렌드 세터
Micro Point 출근길 지하철에서 간단하게 읽는
10분의 인사이트
가격 월 4,900원 (노트 구독 기준)

출근 🕒 책 읽을 시간조차 부족하다면



밀리의 서재 수만 권의 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전문가나 셀럽이 핵심만 추려 읽어주는 ‘요약형 오디오북’은 책 한 권을 10~15분 만에 맞볼 수 있다.

추천 대상 운전 중이나 출근 준비 시간에 귀로 지식을
쌓고 싶은 사람
Micro Point 짧은 시간 안에 지친 눈은 쉬고 귀로
듣는 가장 편안한 독서법
가격 월 9,900원 (전자책 정기구독 기준)

사고력과 소통 능력을 다듬는 두뇌 트레이닝



엘리베이트 읽기, 쓰기, 말하기, 수학, 기억력 등 40개 이상의 과학적인 게임을 통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 난이도가 실시간으로 조절된다.

추천 대상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
Micro Point SNS 스크롤 대신 5분간의 게임으로
뇌를 깨우는 시간
가격 기본 무료 (유료 멤버십 별도)

점심 ☕



외국어 공부가 놀이처럼 즐겁고 싶다면



듀오링고 게임하듯 퀴즈를 풀며 언어를 배운다. 하루 5~20분 중 원하는 학습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

추천 대상 영어 공부, 올해에는 진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Micro Point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분 동안 스테이지 하나 클리어!
가격 기본 무료 (유료 멤버십 ‘슈퍼 듀오링고’ 별도)

일잘리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퍼블리 비즈니스 트렌드부터 기획안 작성법,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실전 지식을 아티클 형태로 제공한다. 한 편을 읽는 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 자투리 시간에 업무 역량을 쌓기 좋다.

추천 대상 업무 역량을 레벨업하고 싶은 사람
Micro Point 점심시간 10분, 커피 한 잔 마시며 일잘리의
노하우 흡수
가격 월 9,900원

퇴근 🏃



최고의 러닝 파트너



나이키 런 클럽 코치가 가이드를 해주는 ‘오디오 가이드 런’이 핵심이다. 활동량을 데이터로 기록해주고 나이키 신발을 보유한 경우 신발을 등록해 관리도 가능하다. 친구끼리 함께 계정을 연동해 기록을 공유할 수 있어 러닝의 동기와 재미를 더해준다.

추천 대상 달리기 습관을 만들고 싶거나 체계적인 관리를 원하는 초보 러너
Micro Point 운동화 끈을 묶고 문 밖을 나서는 5분의 용기, 그 뒤에 코치가 함께한다!
가격 무료

코딩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솔로런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HTML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루 5분 분량의 세션으로 배운다. 앱에 내장된 코드 에디터를 통해 직접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어 실전 감각을 익히기 좋다.

추천 대상 개발자와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비개발자 혹은 코딩 입문자
Micro Point 퇴근길 10분, 복잡한 설치 없이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나만의 코드 한 줄!
가격 기본 무료 (유료 멤버십 별도)

취침 🌙



하루를 기록하는 5분 글쓰기



데이리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 비디오, 오디오, 날씨 등 여러 정보를 통합해 풍성한 일기를 작성할 수 있다. ‘과거의 오늘’ 기능을 통해 추억을 자동으로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추천 대상 다이어리를 사놓고 앞 페이지만 작성했던 사람
Micro Point 침대 위 5분, 사진 한 장 업로드와 위치로 완성되는 고품질 일기장! 1년 전 나는 무엇을 했을까?
가격 기본 무료 (동기화 및 미디어 저장을 위한 구독 별도)

마음의 평온을 찾고 싶다면



칼 3~10분의 짧은 명상 세션부터 셀럽이 들려주는 수면 스토리까지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한다. 스트레스 관리, 집중력 향상, 불안 해소 등 상황별 맞춤 가이드를 지원해 멘탈 관리에 좋다.

추천 대상 하루를 편안히 마무리하고 싶거나 숙면이
간절한 직장인
Micro Point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
가격 7일 무료 체험 후 연간 구독 59,000원

병원 밖에서 만난 세상

경험 위에 전문성을 쌓은 하루

원무팀 류화안 사원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 고객상담 및 분쟁 관련 연수 교육'

원무팀 창구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와 직접 소통하며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겪으며 응대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혀 왔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응대 전략을 배우면 앞으로의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대한병원협회의 '의료기관 고객 상담 및 분쟁 관련 연수 교육'에 참석했다. 오전에는 다른 의료기관 고객상담실의 업무 프로세스와 실제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현장이나 업무 과정에서 겪는 고충뿐 아니라 환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각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알게 됐다. '나도 환자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어진 환자 응대 전략 강의에서는 말로 하는 설명만큼 표정, 시선, 자세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무엇보다 '나의 입장'이 아닌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답변해야 한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오후에는 의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배우고 실제 분쟁 사례를 법적인 기준과 비교해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다. 하나의 분쟁 사례에도 수많은 법적 쟁점 사항과 판단 기준이 얹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러한 복잡한 갈등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이 끝난 후 나는 다른 의료기관의 여러 사례들을 떠올리며 우리 병원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고민해보았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환자들과 소통하려는 나의 응대 방식을 점검하고 이후 환자들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답변하는 계기가 됐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마주하는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병원과 환자 사이를 잇는 든든한 소통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할 것이다.

굿바이
콩글리시

환자가 의료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아파요.'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사람들은 대개 'I'm sick'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어에서 'sick'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메스껍다는 뉘앙스로 주로 쓰인다. '여기 아파요'라고 할 땐 'I'm sick here'가 아니라 'It hurts here' 또는 'I have pain here'라고 하자.

여기 아파요.

☹️ I'm sick here.

😊 It hurts here. / I have pain here.

Let's Talk

- A It hurts here when I move.
움직일 때 여기 아파요.
- B On a scale of 1 to 10, how bad is the pain?
통증이 1부터 10까지 중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말로 '확인하다/살펴보다'라는 뜻으로 '체크(check)'를 많이 쓰지만, 영어에서 'check'만 쓰면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의료진끼리 '그 환자 상태 좀 봐 주세요'라고 부탁할 땐 'check on'을 써서 'Could you check on the patient?'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환자 상태 좀 봐 주세요.

☹️ Could you check the patient?

😊 Could you check on the patient?

Let's Talk

- A Could you check on the patient?
그 환자 상태 좀 봐 주겠어요?
- B I'll take a look right away.
바로 살펴볼게요.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외과간호2팀 조영미 과장

'굿바이 콩글리시'를 통해 자주 쓰던 표현이 콩글리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새로 배운 표현을 바로 외국인 환자 응대에 활용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에 도움되는 표현을 많이 소개해 주세요~

암병원간호2팀 박은혜 대리

업무를 하며 진료협력팀 김규민 선생님과 메시지를 종종 주고받았는데,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를 통해 어떤 마음과 철칙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해요!

심장검사팀 한윤아 선임기능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각으로만 그치기 쉬운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암병원간호팀 이미주 과장

'이야기가 있는 산책' 코너가 마무리된다는 소식에 아쉬움이 큼니다. 필자들의 병원 밖 경험을 통해 색다른 시선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코너로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새로운 코너도 기대할게요!

피부과 윤혜경 연구원

아산상 시상식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재단의 나눔과 헌신을 접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수상자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풍납동 사진관

특별한 외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특별한 외출을 다녀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첫 가족 외출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병원 밖으로
나선 하루였습니다.

함께한 웃음이
일상으로 나아가는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 햇살나무 그리고 중증소아 재택의료팀



소마미술관으로 나들이를 간 준연이네 가족과 강성환 부교수(오른쪽)